

냄새나는 한적(漢籍)과 함께한 세월

내 가난한 삶과 학문의 길

임동석

전국대 교수 · 중문학

나의 어린 시절을 말할 때면 두려움과 괴로움이 앞선다. 나는 경상도 소백산 밑 영주의 촌에서 몰락한 가문의 외아들 장손으로 태어났다. 6·25가 일어나기 반년전 썸이었다. 토굴을 파고 겨우 살아난 우리는 전쟁이 끝나갈 무렵 결국 먹을 것을 찾아 다시 화전민으로 전락했다.

소백산을 휘감아돌아 충북 단양의 금곡이라는 산속이었다. 그러나 그곳 역시 연명은 불가능했다. 다시 덕상골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봄이면 사람이 설 수 없는 수직의 산조차도 불길 연기가 피어올랐다. 돌틈 사이의 한줌 흙조차 조·수수를 심었고 장마가 끝나면 다시 메밀을 심었으며, 그 메밀은 먼저 손을 잘라먹고 열매맺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국어 교과서'

어머니는 그래도 글씨나 아는 선비집 딸로 처녀 때 어깨너머 배운 언문과 한문을 꽤 알고 있었다. 그 때문에 몇몇 되지 않은 동네 길흥사에 편지나 서식을 쓸 일이 있으면 깨어진 벼루에 먹을 갈아 창조지 환종이에 찬찬히 써내려 가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내가 다섯살쯤되자 그 창조지에 반듯하게 줄을 맞추어 "가가거겨고고구구기..."를 쓰셨다. 나의 첫 교과서인 셈이다. 그리고는 외우기 쉽게 "가가 가다가 거겨 거랑에서 고고 고기잡아 구구 구글(국을) 꿰어 나나 나도먹고 너너 너도먹고..."라는 <언문가(諺文歌)>도 알려주셨다.

이렇게 한글을 터득하고 나자 다시 <천자문>으로 이어졌다. 어머니는 역자이교(易子而教)라고 동네 어른 중에 한문을 아는 노인이 있어 그곳에 가서 더 배워야 한다고 했다. <체몽편> <동몽선습>이었으며 가을에 보리쌀 한말이 학비의 전부였다. 나는 호롱불 밑에서 열심히도 외웠다.

그러나 조팝나무꽃 하얗게 피는 봄이면 그 무서운 가난과 허기를 견뎌낼 수가 없었다. 집안은 다시 유랑길에 올랐고 이번에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나는 다시 아버지를 따라 충주에 살았다. 그곳에서 열살이 되어서야 대소원초등학교에 입학할 하게 되었고

이듬해 다시 단양으로 전학하여 중학교까지 가난과 싸우며 겨우 마칠 수가 있었다. 공부를 그런대로 잘해 충청북도 도비장학생 시험도 합격했다.

고등학교를 가야 했다. 아버지는 반대였다. 산전 파먹는 노동력이 우선이었다. 나는 밤에 도망을 치기로 결심을 했다. 우선 초등학교 때 서울로 이사 간 친구에게 편지를 해두고 보자기에 책을 싸들고

틈만 나면 봉급을 쪼개어
인사등을 뒤졌다. 내 수입에
맞지 않은 책을 사서
땀을 뻘뻘 흘리며 좁은 방에다가
쌓았다. 그 중에 한달치 봉급을
몽땅 털어넣은 <두시언해>
중판본은 낙질 한권이지만
지금 나의 재산목록
일호가 되었다.

방고개리는 산길을 넘어 역으로 향했다. "중앙선 밤 1시20분 청량리행 열차."

그 친구집을 어딘지도 모르고 주소만 들고 찾아갔다. 고등학교 원서는 그 친구가 내 실력에 맞춘다고 K고등학교를 준비했다. 다행히 합격했다. 그러나 일전한푼 없었다. 중학교 때에 받았던 장학금을 모은 것을 털어내었다. 그러나 살길은 없었다. 입학 후 일주일쯤은 몰래 교실에서 잤다. 시멘트 바닥의 냉기에 입이 돌아갔다. 모포의 황금색 고(高)자가 원망스러웠다.

나는 무작정 신문보급소를 찾았다. 학교 근처 C일보 삼선동 보급소였다. 이리하여 3년을 꼬박 신문배달로 견뎌냈다. 그리고 밤에는 초등학생 과외도 했다. 학교 공부는 엉망이었다. 잠을 견뎌낼 수가 없었다. 영어·수학은 0점에 가까웠고 화학·물리 등은 전혀 그 개념이 입력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과과목은 이상하게도 한번만 들으면 알 수 있고 특히 한문과 국어, 고문은 눈길 한번만 가도 입에 붙어

외워지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늘 외우시던 내방가사가 바로 그 감을 되살렸다. 특히 고문시간에 조선초의 문헌인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석보상절(釋譜詳節)> 등은 신기하게도 잘 외워졌다.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라는 부분에서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같은 한문인데 옆에 써놓은 발음과 해석이 다른 것이다. "대가니중나리내(大家從那裏來)가 '따꺼니중나리래:큰형아 네 어디로셔온다?'로 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 의문이 뒤에 나의 박사논문이 되었고 내 학문길의 첫 지적 욕구의 동기였다.

한달치 봉급으로 산 <두시언해> 한권

그러나 평상의 학교생활은 현실적인 생존으로 인해 참으로 고달팠다. 마지막 등록금을 내지 못해 졸업앨범을 받지 못했다. 지금도 동창들의 얼굴과 이름을 따로 외운다. 2학년 때 어머니를 모시고 산동네 움막을 구했고 아버지는 다시 유랑생활로 소재조차 알 수 없었다.

"무거운 짐에 갈길이 먼 자는 땅을 가리지 않고 쉬는 법이며, 집은 가난하고 늙은 아버이를 모신 자는 관직을 가리지 않고 벼슬하는 법(任重途遠者, 不擇地而息. 家貧親老者, 不擇官而仕)"이라 했던가.

나는 우선 2년을 얼른 학업을 마치면 취직이 보장되는 교육대학을 택했다. 고등학교 때 최고의 꿈이 고등학교 고문 한문 선생님이었지만 우선 가난이라는 소나기는 피하고 나서 생각해보기로 했다. 합격자 발표가 나와 보급소 전화번호로 "입주가정교사, 초등학교생원, 교육대학생"이라고 구직광고 두줄을 냈다. 이리하여 광장동 H호텔 집의 3·5학년 아이를 맡게 되었다.

좋은 인연으로 2년의 대학생활을 마치게 되자, 역시 꿈인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4년제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발령도 받기 전에 야간대학 편입시험을 쳤다.

모교의 K교수가 선포 등록금을 주시면서 선생님되어 봉급받거든 값으라는 것이었다. 등록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양복총판이라는

곳에 가서 기성복을 처음으로 사서 입고 염천교 뒷골목에서 초로 광을 낸 구두도 샀다. 선생님이 되면 양복을 입어야 한다고 해서다. 가정교사 집을 나서서는 집도 절도 없었다. 그러나 곧 발령이 나면 봉급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에 나는 아주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여동생을 찾아 불광동 산동네에 무허가 집을 얻었다.

주경야독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다시 짬을 내어 우전(雨田) 신희열(辛鎭烈)선생을 찾아 한문을 배우겠다고 나섰다. 종암동 사간동 연회동으로 선생님이 이사를 다닐 때마다 따라다녔다. 함께 배우던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다. 지금은 거의 교수가 되어 우리나라 한문학계의 내로라 하는 분들이다.

나는 그 선생님을 만난 것이 학문의 길로 들어선 계기라고 늘 자부한다. 무엇보다 선생님 집에 있던 냄새나는 한적(漢籍)을 눈으로나마 제목을 보고 나도 읽어낼 수 있을까 하는 소박한 결심이 지금의 나로 성장시킨 것이다.

그래서 틈만 나면 봉급을 쪼개어 인사등을 뒤졌다. 선생님 집에서 본 것과 같은 제목이면 그것을 귀중한 책으로 여겨 사모았다. <사서(四書)>는 물론 <제자백가서> 그리고 <십팔사략>조선고판본, <당시(唐詩)> 고본, <한적총서>일본판 등은 물론 <국역총서>(민족문화추진회)도 월부로 사는 등 나의 수입에 맞지 않은 책을 사서 땀을 뻘뻘 흘리며 좁은 방에다가 쌓았다. 그중에 한달치 봉급을 몽땅 털어 넣은 <두시언해(杜詩諺解)> 중판본은 낙질 한권이지만 지금 나의 재산목록 일호가 되었다.

이는 나의 일생에 중요한 계기였다. 돈이 아까워서였다. 손에 들고 넘기다가 내 좋아하는 시 <객지(客至)>를 만나 계약금을 주고 이튿날까지 누가 사가면 어쩌나 하고 조바심을 했지만 막상 사서 들고 돌아설 때는 내가 정신이 나갔다 하고 후회스러웠다. 그래서 아까워서라도 공부를 계속해야겠다고 서들었다. 4년제를 졸업했지만 고등학교 선생님의 길은 막혀 있었고 게다가 교육대학 졸업의 초등학교

문체부 '97 우수학술도서 발표

9개 분야 63종 ... 종당 250만원 상당 제작비 지원

교사 의무복무 연한도 끝나지 않았다. 대학원을 찾았다.

중국고전 역주의 즐거움

여기서 다시 전기를 맞았다. 같은 반에 중국인이 유학을 온 것이다. 나이도 같고 성격도 비슷해 아주 친해졌다. 그가 필요로 하는 한국의 자료는 얼마든지 찾아내줄 수 있는 내 능력에 감탄했고, 항상 우리집에 함께하면서 학문토론은 물론 자연스럽게 중국어까지 익힐 수 있었다.

그는 중국(당시 대만)으로 유학을 가면 어떻겠느냐고 제의했다. 꿈같은 얘기였다. 마침 지도교수도 중국유학을 다녀온 분이라 "자네 정도면 얼마든지 가능하겠네"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유학시험은 만만치 않았다. 겨울방학 때 문을 걸어 잠그고 대만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12권을 몽땅 외워버렸다.

대만사범대 국문연구소 박사과정, 꿈에나 그려볼 이름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그나마 안정되었던 교사생활을 벗고 과감히 다시 학해(學海)로 뛰어 들었다. 이제는 정말 무언가 학계에 도움이 될 보람 있는 일을 해보겠다고 중국 고전 역주에 정신이 없다. 현재 내 작업과 학문의 가치나 성취여부에 관계없이 그저 즐겁다. 내 갈길이 있다는 안도감에서일 것이며 지난날 나의 학문역정과 삶이 오늘의 나로 키워준 고마움 때문일 것이다. ❖

문화체육부는 '97년도 우수학술도서 63종 70권을 선정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에 출판된 도서 626종 가운데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총류·철학·종교·사회과학·순수과학·기술과학·예술·문학·역사 등 9개 분야의 책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도서는 (재)한국출판금고에서 종당 250만원 상당의 제작비 지원과 함께 65만원 상당의 도서구입비가 지원됐다. 선정된 도서는 다음과 같다.



'97 우수학술도서 목록

분야	도서명	작가/역자	출판사	분야	도서명	작가/역자	출판사
총류 (3종)	자연지리학사전	자연지리학사전편찬위	한울	순수 과학 (4종)	도둑맞은 미래	T. 콜본/권복규	사이언스북스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박문석	지식산업사		한국 수목해충	이범영 외	성안당
	음운과 문자	김완진	신구문화사	갈기도하고 아니갈기도하고	R. 호프만/이덕환	까치글방	
철학 (8종)	맛음의 철학	정대현	철학과현실사	원자력의 정치경제학	T. 프라이스/박정택	검지사	
	심리철학	김재권	철학과현실사	기술 과학 (7종)	클라이언트 & 서버시스템 구축과 활용	김상하 외	광문각
	정신은 어떻게 출현하는가	조용현	서광사		봉화에서 텔레파시 통신까지	진용옥	지성사
	플라톤의 국가, 정치	플라톤/박종현	서광사		환경인을 위한 유체역학 및 기계	김장호 외	지구문화사
	주체는 죽었는가	강영안 편저	문예출판사		정보통신공학	김남 외	기전연구소
노장신론	진고응/최진석	소나무출판사	가상현실형 감성공학		이순오 외	청문각	
종교 (3종)	16세기 무신앙 문제	R. 페브르/김응중	문학과지성사	축산시설, 기계학	정태영 외	향문사	
	환경과 종교	김희성 외	민음사	SOS 환경, 이것이 알고 싶다	정재춘	향문사	
	한국근대불교사연구	김광식	민족사	예술 (4종)	영상기계와 예술	이원근	현대미학사
사회 과학 (17종)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최장집	나남출판		실크로드 미술	권영필	열화당
	한국 언론과 선거보도	권혁남	나남출판		수목화교실	심문선	미진사
	페미니스트	R. 에번스/정현백	창작과비평사		나는 공부하러 박물관에 간다	이원복	효형출판
	위협사회	U. 백/홍성래	새물결출판사	문학 (8종)	한국문학의 원근법	이재선	민음사
성, 숭배와 금기의 문화	이종철 외	대원사	한국시의 감각과 미적 거리		김현자	문학과지성사	
조선시대 유교문화	최봉영	사계절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박희병	돌베개	
네학교 이야기	김영천	문음사	한국근대소설사		김영민	솔출판사	
경제와 사회 1	M. 베버/박성환	문학과지성사	박완소설에 나타난 도시와 모성		강인숙	등지	
자유주의 이후	E. 윌러스틴/강문규	당대	문학과 페미니즘		P. 모리스/강희원	문예출판사	
한국가족제도의 변화	한남제	일지사	역주 백호전집(상·하)		임제/신호열	창작과비평사	
한국경제의 불평등 분석	윤기중	박영사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김미현	신구문화사	
진보와 빈곤	H. 조지/김윤상	비봉출판사	역사 (9종)	거시 중국사	황인우/홍광훈 외	까치글방	
유쾌한 경제학	T. 부크홀츠/이성훈	김영사		서울 600년(1-5)	김영상	대학당	
한국근대조세사상연구	강인애	조세통람사		죽음 앞에 선 인간(상·하)	P. 아리에스/유선자	동문선	
범은 무죄인가	박흥규	개미고원		송대 사대부사회 연구	양중국	삼지원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마루야마 마사오/김석근	한길사		도전과 응전의 우리나라 근대 100년	이현희	새문사	
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	C R. 노글루/김정선	문예출판사		문화로 본 새로운 역사	R. 헌트/조한욱	소나무출판사	
				한국독립당연구	노경제	신서원	
				한일간의 미청산과제	한국정신대문제연구회	아세아문화사	
				서양고대사상의	김진경 외	한울	